

보도시점 : 2024. 11. 1.(금) 06:00 이후(11. 1.(금) 석간) / 배포 : 2024. 10. 31.(목)

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... 서해선·장항선·평택선 동시 개통

- 11월 2일 정식 운행... 충청남도과 수도권 서부지역 종단철도망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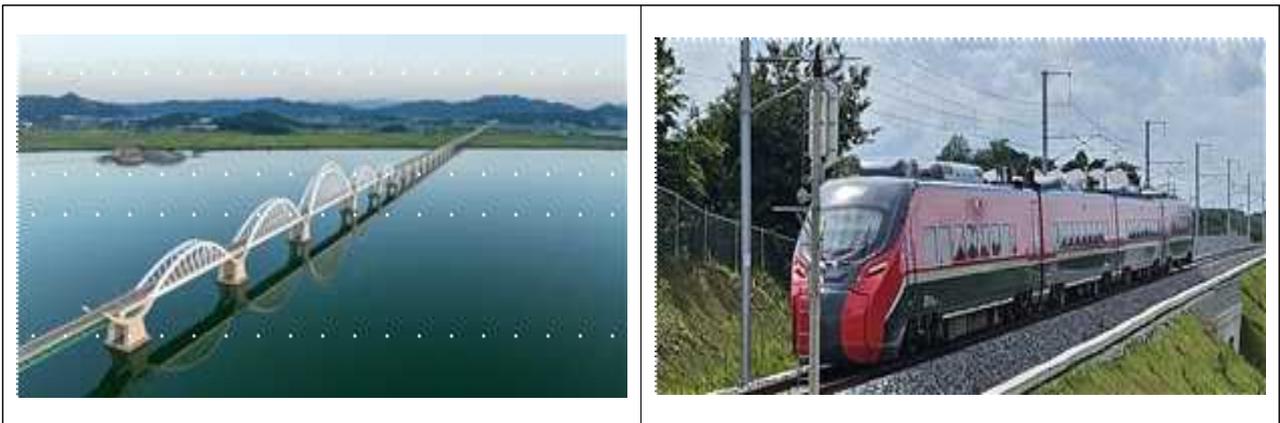
- 서해안의 철도 교통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.
 - 서해선(홍성~서화성), 장항선(신창~홍성), 포승-평택선(안중~평택)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하면서,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아,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1월 1일 오후 3시 홍성역에서 서해선(홍성~서화성), 장항선(신창~홍성), 포승~평택선(안중~평택)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개최하고, 11월 2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.
 -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, 공공기관,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·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.

< 1. 서해선(홍성~서화성) 복선전철, 이하 “서해선” >

- 서해선은 충청남도 홍성역에서 경기도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.0km의 신설 노선(총사업비 4조 1,217억원)이다.
 - 충청남도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축이 새롭게 형성되면서, 아산, 당진, 홍성, 평택, 화성, 안산 등 서해안 권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우선,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-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,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다.
- '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~원시 구간이 개통되면, 홍성역에서 고양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km급 KTX-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. '26년 3월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 시간과 연동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.
- 특히,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.9km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되어 있다. 이 중 '아산고가 아치교'는 연장 625m, 높이 44m로 국내 최장·최대 규모이며,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.
- 한편,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(CY)를 조성하여,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(서화성~부산신항·부산진),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(평택 안중~울산 용암) 운행한다.

< 서해선 관련 주요 사진 >



△ 서해선(아산호 횡단) 아산고가 아치교 △ 서해선(안중→항남)을 달리는 ITX-마음

< 2. 장항선(신창~홍성) 복선전철화, 이하 “장항선” >

-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.4km의 노선으로,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,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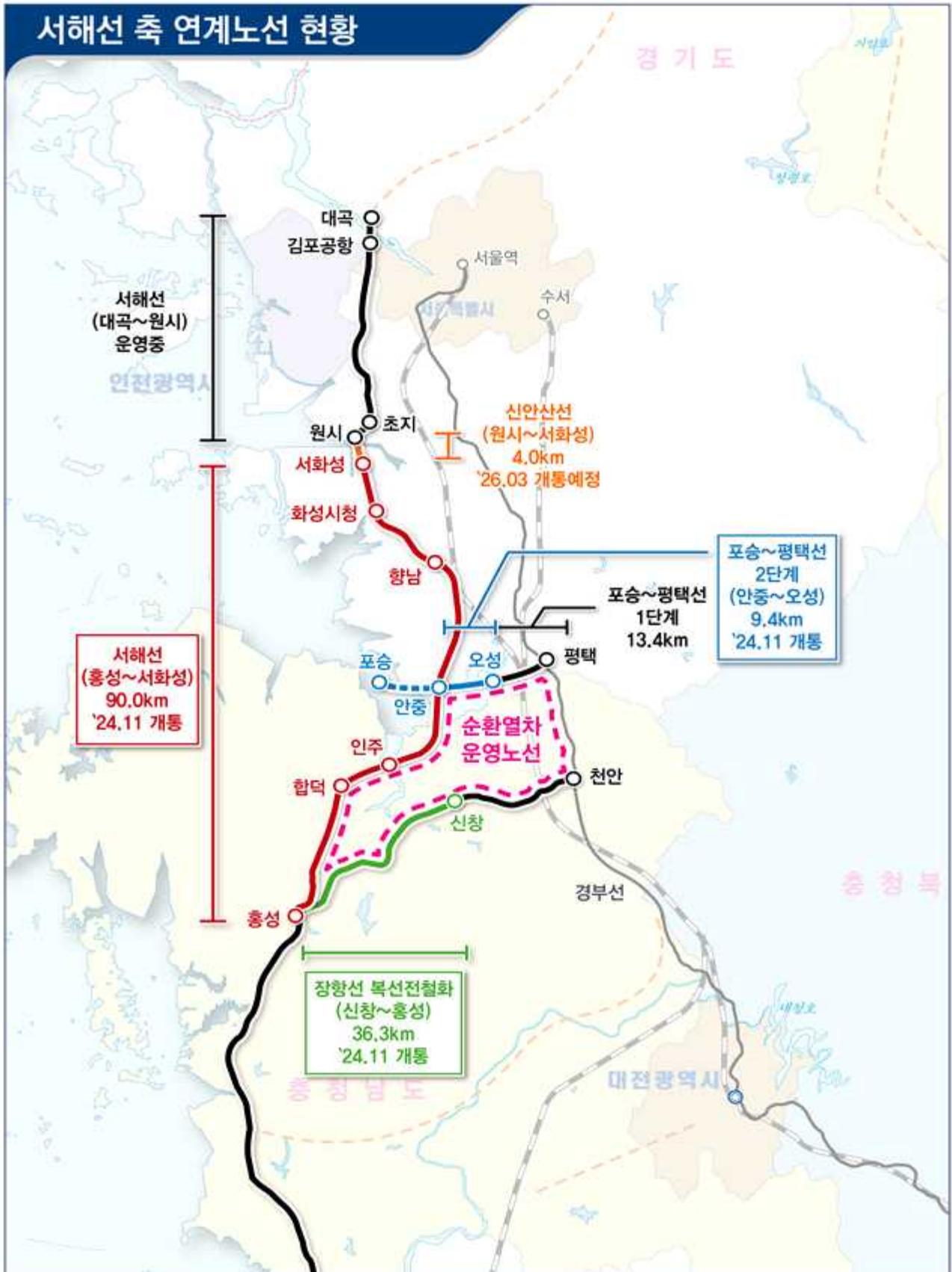
- '08년 천안~신창(아산) 구간이 복선전철화되었고, 이번에 신창(아산)~홍성 복선전철 구간(36.35km, 총사업비 2,467억원)을 개통한다. 기존에 운행되던 무궁화호,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-마음이 하루 2회 증편되면서, 용산~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총 30회로 늘어난다.
- 향후 '27년 말 홍성~대야(군산) 구간(82.28km)도 개통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연결돼, 전라북도 익산부터 충청남도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.

< 3. 포승~평택(2단계 안중~평택) 단선전철, 이하 “평택선” >

-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.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하여,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.
- '15년 1단계 구간 숙성~평택(13.4km)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~숙성(9.4km, 총사업비 1,503억원)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,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구간(22.8km)을 전철화했다.
- 평택선, 서해선,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하여, 홍성~천안~평택~안중을 순환하는 ITX-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. 이를 통해,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,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.
-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, 장항선(홍성~대야), 포승~평택선 3단계(포승~안중) 등이 차례로 개통되면,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며,
- “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(이천~문경), 대구권 광역철도, 중앙선(도담~영천), GTX-A(운정~서울), 동해선(포항~삼척)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,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, 지자체,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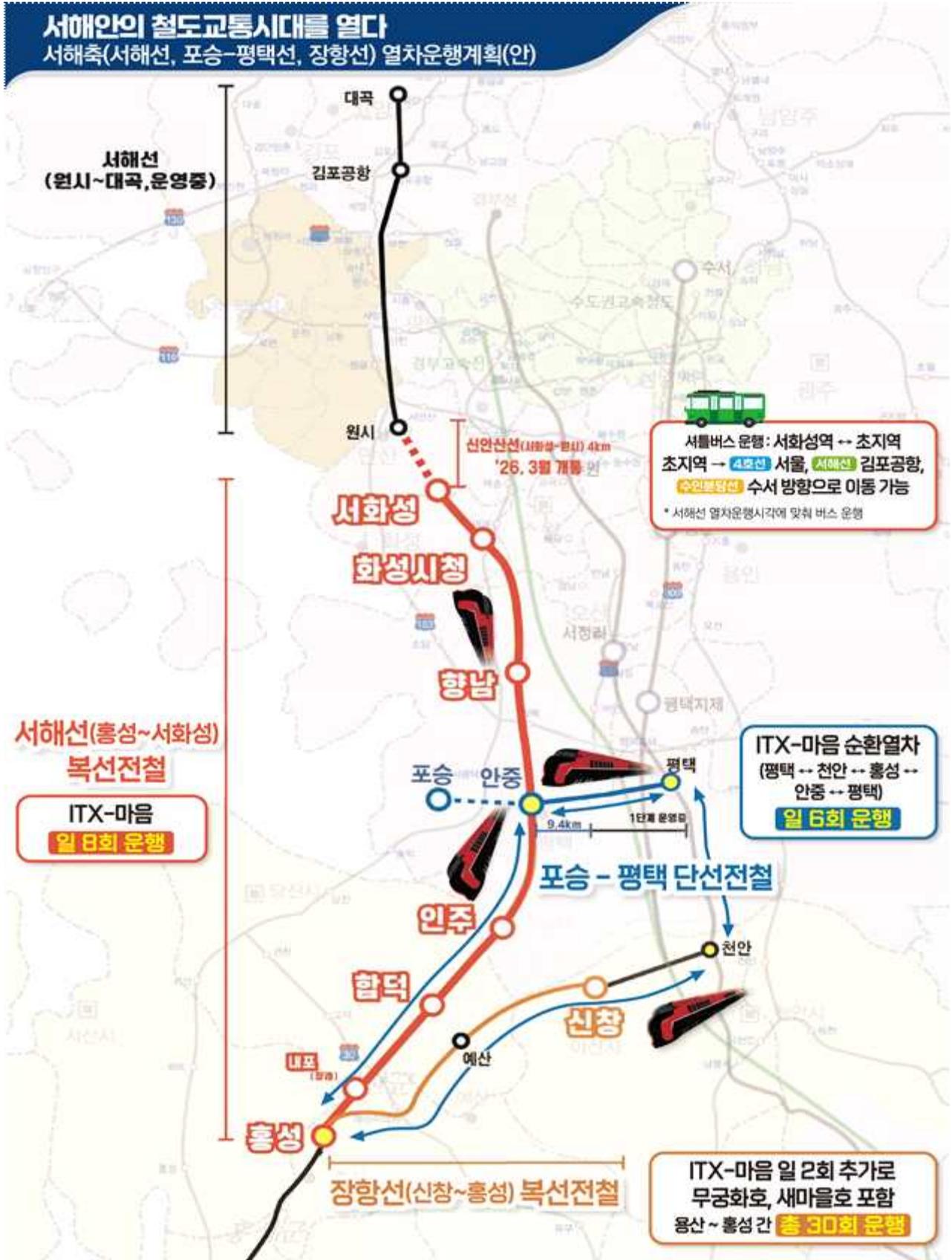
담당부서 (개통사업, 개통식)	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송천 (044-201-39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한 (044-201-39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철 (044-201-3952)
담당부서 (열차운행계획)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	심동휘 (044-201-4631)





참고 2

열차 운행계획(안) ※ 대용량 파일 별첨



□ 서해선(홍성~서화성) 복선전철

- (사업구간) 홍성(충남 홍성)~서화성(경기 화성) 간 복선전철 건설(90.0km)
- (총사업비 / 사업기간) 4조 1,217억원 / '09~'26년
- (사업효과) 서해선축 철도망 구축으로 충남 홍성~경기도 화성간 철도연결을 통한 수송 시간 단축 및 교통편의 증진

□ 장항선(신창~대야 중 1단계 신창~홍성) 복선전철

- (사업구간) 신창(충남 아산)~대야(전북 군산) 간 복선전철화(118.6km)
 ※ 1단계(신창~홍성, 36.35km) '24.11월 개통 / 2단계(홍성~대야, 82.28km) '27.末 개통 예정
- (총사업비 / 사업기간) 8,396억원(^{1단계}2,467억원, ^{2단계}5929억원) / '18~'27
- (사업효과) 전철화를 통해 인접 선로인 경부선과 서해선의 연계 운영으로 물동량 및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해소

□ 포승-평택선(안중~오성)

- (사업내용) 포승(평택 포승읍)~평택(평택읍) 30.3km(단선)
 ※ 1단계(오성~평택, 13.4km) '15.2월 개통 / 2단계(안중~오성, 4.6km) '24.11월 개통
 3단계(포승~안중, 7.5km) 제4차 항만기본계획('20년 수립)에 따라 철도사업 계획, 철도부지 등 매립이 지연되고 있어 '30년 이후 사업 착공 가능
- (총사업비 / 사업기간) 7,091억원(^{1단계}3,525억원, ^{2단계}1,503억원, ^{3단계}2,063억원) / '04~'30년
- (사업목적)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으로 인한 평택항과 배후 공단의 급증하는 물동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산업철도 건설